

정부사업보고

민족사업과 관련한 내용들은 ?

3월 5일, 국무원 총리 리강은 14기 전국인대 3차 회의에서 정부사업보고를 했다. 정부사업보고는 민족사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을 착실히 준비, 개최하고 제12회 전국소수민족전통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우리 나라 운동健儿들은 빠리올림픽에서 해외 경기 참가 최고 성적을 거두었다.

★ 로핵명근거지와 민족지역의 빠른 발전을 지지하고 변경지역 건설을 강화했으며 흥변부민을 추진하고 변방을 안정시키고 공고히 했다.

★ 우리는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하는 것을 우선으로 민족구역자치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하며 민족단결진보사업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민족지역의 현대화 건설 발걸음을 다그쳤다. 당의 종교사업 기본방침을 견지하고 우리 나라 종교의 중국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했으며 종교사무관리의 법치화를 강화했다. 교포업무 기제를 완비하여 해외 교포와 귀환 교포 가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외의 중화 아들딸들이 함께 휘황함을 창조할 수 있는 강대한 힘을 결집시켰다.

/인민넷

해외 인사:

중국 국제협력 심화는 상생의 비전



련운항 중국—유럽 화물열차는 올해 전 2개월 루게로 176대를 발차해 전년 동기 대비 22.9% 증가했다. 사진은 3월 10일, 중고차, 자동차 부품을 가득 실은 중국—유럽 화물열차가 중국—까자흐스탄 (련운항) 물류협력기지를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신화넷

전국 량회는 해외 각계인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들은 중국은 시종 대화와 평화에 힘쓰고 있으며 정부사업보고는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경제무역 교류를 추진하려는 적극적인 신호를 보내며 대국의 책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 베를린프로이센협회 명예주석 폴첵차프크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글로벌 지연정치, 경제 형세가 어려움에 직면한 배경하에서 중국은 안정되고 멀리 나아가는 동시에 대화와 평화에 진력하며 대국의 책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중국이 정부사업보고에서 세운 발전 목표는 실무적이라며 “중국은 중요하고 필요하며 항상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이다. 중국과 협력하기를 원하는 모든 국가에 모두 그렇다.”고 주장했다.

한국 한중도시우호협회 회장 권기식은 “중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5% 가량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 목표를 제시했다.”며 “기술혁신은 시장의 활력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기식은 “현재 전세계는 미국 트럼프행정부가 펼치는 리의 중심의 대외정책에 실망스럽고 불안해하고 있다.”며 중국이 다자주의 국제질서 및 글로벌 자유무역질서의 수호자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올해 량회가 경제와 대외정책에 대한 중국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로씨야 화교중국인련합총회 상무부회장 원의는 정부사업보고에서 언급한 신질생산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질생산력은 디지털화, 지능화, 네트워킹화 신기술을 버팀목으로 글로벌 경제와 사회구조를 개변시키고 있다. “우리는 해외에서 외국 친구들이 중국의 DeepSeek, 지능로봇 등에 대해 열린 토론을 하는 것을 자주 보았는데 그들은 중국이 세세대 지능단결기 분야에서 이룩한 발전과 성과에 경탄했다.”

일본에 거주하는 화교이자 일본 경극원 원장인 우여준은 정부사업보고의 량안 관계 표현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그는 “예술은 량안을 연결하는 다리이며 동포간의 감정을 증진시키는紐대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사업보고에서 정신문명 건설을 강화한 부분에 대해 깊이 감명하며 “우리는 예술의 형태로 민족정신을 계승하고 문화적 자신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섬서동향회 집행회장 조소는 다년간 독일에서 생활하면서 량국의 교육과 산업 협력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그는 중국이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진일보 확대하는 동시에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최적화와 고도화를 추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인상회 회장 정성리는 정부사업보고중의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장대시킨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면서 그에 숨겨진 거대한 기회를 보았다고 전했다. 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최근 몇년 동안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제조 업그레이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장 수요가 광범위하다. 중국은 인공지능, 대형 모델 등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 우세를 가지고 있다. 중국인상회 기업들은 신흥산업 분야에서 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의 협력을 촉진하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네팔 화교중국인협회 회장 김효동은 정부사업보고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심화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중국이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경제 및 무역 교류를 촉진하려는 긍정적인 신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정책이 시행되기를 바란다며 두 나라가 기초시설 건설, 관광, 경제무역 등 분야에서 더욱 실질적인 협력을 촉진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국신문넷

올해 정부사업보고는 민영경제를 많이 언급했다. 또한 ‘국영경제와 민영경제의 공동발전’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이어갔을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자의 활력 방출 및 과학기술 선도기업의 선도적 역할 발휘 등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제출했다.

◇ 립법으로 민영경제 보호

《2024년 국민경제및사회발전계획 집행 상황 및 2025년 국민경제및사회발전계획 초안에 관한 보고》는 민영경제촉진법 시행을 제기했다. 해당 법안은 ‘국영경제와 민영경제의 공동발전’을 명확히 포함하고 있으며 법률의 권위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민영기업이 자원 획득, 시장 경쟁 등에서 평등한 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했다. 이를 통해 시장 예측을 효과적으로 안정시켰으며 민영기업가의 투자·창업 자신감을 크게 향상시켰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국가개발은행 당위원회 조직부 부장인 왕은 “중국이 민영경제의 발전 촉진을 위한 비교적 완비된 제도체계를 구축했지만 현재 여전히 두가지 문제가 존재한다.”며 “첫째는 정책을 중시하고 법률을 경시하는 것이요 둘째는 제정을 중시하고 실행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영경제의 립법 강화는 이런 문제를 립법 방식으로 해결하



2024년 6월 26일, 광둥성 심천시 남산구 스마트단지에 있는 유비텍과학기술주식회사 본사에서 직원들이 휴머노이드 로봇(人形机器人)을 테스트하고 있다.

/신화넷

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민간투자에 활력을 불어넣다

올해 정부사업보고는 민간투자 발전 지원 및 장려,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의 새로운 기제의 규범적 시행, 더 많은 민간자본의 중대 기초시설 및 사회민생 등 분야 건설 참여 유도 등 민간자본의 더욱 광범위한 발전 가능성 모색을 제출했다.

전국정협 위원 왕춘수는 민간자본

의 활성화는 중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추진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도적 배치를 통해 민영기업의 자금 압박을 완화하고 ‘정부투자 주도, 민간자본 관망’의 난국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왕춘수는 정책 실행 가능성 부족, 프로젝트 실행 효과 예상치 미달, 대형 기초시설의 시장화 개방 정도 미흡, 민간투자 요소의 보장 불충분 등의 문제가 존재해 중대 프로젝트 건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실질적 참여에 영

전국인대, 경제·민생 관련 기자회견



9일, 14기 전국인대 3차 회의 기자회견이 북경 미디어센터에서 있었다. 사진은 기자회견에서 질문하는 외신 기자.

/신화넷

은행 정황에 근거하여 적당한 시기에 지급준비률과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현재 금융기구의 지급준비률은 평균 6.6%로 아직 하락 여지가 있으며 구조적 화폐정책 도구 금리(工具利率)를 인하하는 방안도 연구할 수 있다. 과학기술혁신 및 기술혁신을 위한 재대출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정책 지원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9일, 14기 전국인대 3차 회의 기자회견이 북경 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되었다. 민정부 부장 류치원,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장 왕효평,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부장 예홍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 회해조는 민정, 취업 및 사회보장, 주택, 위생건강 등 민생과 관련한 국내외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양로보험 대우 수준 향상시킬 것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장 왕효평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양로보험 대우 수준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올해 도시와 농촌 주민 기초양로금 최저 표준을 매달 재차 20원 인상시킬 것이다. 이 대우의 향상은 도시와 농촌의 로년 주민 1.8억명과 관련된다. 이외 퇴직연금 기본양로금도 적당히 높이되 중점적으로 중저수입군체에 편향할 것이다. 이 대우의 향상은 퇴직연금 1.4억명과 관련된다. 그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은 참담하게 예산하여 제때에 정확하게 발급하도록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주택 충고 기준 3미터 이상으로 조정!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부장 예홍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사업보고는 인민대중의 고품질 주거 수요에 적응하고 기

준 규범을 완비하며 안전하고 쾌적하고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좋은 집’ 건설을 추동할 것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세가지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첫째, 기준을 세운다. 최근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좋은 집’ 건설 지침을 마련하고 주택 프로젝트 규범을 개정하고 있는데 그중 한가지가 바로 주택의 충고를 3미터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다.

둘째, 과학기술을 강화한다. 한면으로 해빈 실용적 신기술, 신소재, 신공예, 신제품을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방음 불량, 무출, 균열, 냄새가 올라오는 등 모두가 관심을 갖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한다. 다른 한면으로 집 전체의 지능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셋째, 프로젝트를 틀어쥐다. 도시와 기업의 ‘좋은 집’ 건설을 촉진하고 ‘좋은 집’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신화넷